

박수

- 부자유한 두 손 -

김 성 현(시인)

그대의 기쁜 날
한없이 들려주고픈
힘찬 마주침의 소리

토라진 연인처럼
서로를 외면하는 두 손

단상에 올라
감격의 눈물 흘리는 그대에게
그 앞에서 미소 지으며
가슴으로 치는 나의 박수

볼륨을 끈 듯
들리지 않아 미안하지만

이 순간 나 역시
그대와 함께
한없이 기뻐하고 있음을!

환영, 축하, 기쁨, 찬성의 표시 등으로 손뼉을 마주 두드리거나 치는 동작이다. 힘차게 쳐주고 싶는데 한쪽 손바닥이라도 아프거나 불편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두 손을 댈 수 없어 외면해도 칠 수가 없다. 부자유한 두 손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불편이다.

상대방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현장에서도 마음껏 큰소리로 보내주어야 할 박수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미안하지만 마음속으로 보내야 하는 박수밖에 보낼 수가 없다. 볼륨을 꺾듯 소리가 나지 않는 가슴으로 치는 박수다.

기뻐하고 있는 마음은 똑 같은데 보여주거나 박수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다. 화자는 이따금씩 찾아오는 육체적인 모순으로 인한 피해 아닌 피해를 만나야 했지만 그때그때 참고 견뎌야 했다. 그때마다 슬픔을 견디면서 참아야했던 흐느낌을 혼자 감춰야 했다.

물의 이야기

김 문 철(수필가)

따뜻한 봄이 오면 시끌벅적한 시골의 장터처럼 겨울 내내 잠들어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기지개를 켭니다. 이 때 모든 생명체들에게 활기찬 생명의 기운을 돌게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인 물은 자연적으로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인 고체·액체·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물은 추운 겨울 동안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있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액체 상태로 되어 산과 들과 계곡 등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탈레스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은 천연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적의 4분의 3을 바다와 빙원(氷原)과 호소(湖沼) 그리고 하천의 형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도 일주일 이상을 견딜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일주일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에서 수분이 5%가 부족하면 피곤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두통이 생기고 심지어는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만약 수분이 10% 이상이 빠져나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처럼 물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홍수나 산사태 등을 방지하여 수해(水害)를 없게 하는 일을 ‘치산치수(治山治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경시대에는 군왕의 덕목 중 하나가 가뭄과 홍수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태평성대(太平聖代)를 이루게 하는 것 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상적인 군주를 요순우탕(堯舜禹湯)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동이족(東夷族)인 순임금이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 우(禹)를 등용하여 성공적인 치수로 농토가 증대되었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화 사회에도 적용되는 말로,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극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유럽의 중심이 된 독일의 ‘라인 강의 기적’이나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며 세계 경제 대국의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도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물은 우리 인간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찮아 보이지만 결코 하찮지 않은 것이 물입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되며,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물은 우리들에게 덕(德)이 있는 가르침을 줍니다. 관수세심(觀水洗心)이란 말이 있듯이 물은 여리고 약하지만 강한 것을 이기고 거만하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물은 아래에 머물 줄 알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으려고 싸우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서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물은 네모난 상자에 담기면 네모꼴로, 세모난 상자에 담기면 세모꼴로 존재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합니다. 물은 막힌 곳이 있으면 뚫으려하지 않고 돌아가듯이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물은 그릇이 차면 비우고 비우면 또 그릇을 채웁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 부분이 남아넘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은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같이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졌으면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콩 한 알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 갖고 생활할 줄 아는 마음 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과 빛과 공기가 만들어내는 무지개는 공기 중의 물방울에 의해 태양광선이 반사되고 굴절되어 나타나는 일곱 빛깔의 원호로,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색채의 현란함은 매우 경이롭습니다. 공기 중의 물방울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드는 것처럼 행복하고 낭만적이며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생활 속에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처럼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창한 어느 날 오후 시냇가에 앉아서 흐르는 물속에 비춰진 오늘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 자신을 지키며 살아온 지난날들을 회상해 봅시다.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피해가고 길이 없으면 새로 만들면서 흘러가듯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살아온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갈 것입니다.